

# 민원에 막혀 서둘러 막내린 '금남로 문화길'

### '차 없는 거리' 시범사업 일부 상인 반발...한달앞서 마무리 문화예술계·시민들 아쉬움...대전시 의욕적 추진과 대조

광주시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에 맞춰 추진해온 '금남로 차 없는 거리' 사업이 지난 28일 마지막 행사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금남로 일부 상인들의 반발로 서둘러 막을 내린 것이다.

당초 내년부터 정례화하려 했던 이 사업은 일부 상인들의 반발에 예산 편성조차 하지 못하는 등 불투명해지면서 시민들의 아쉬움을 키우고 있다. 대전시가 일부 민원에 불구하고 의욕적으로 '중앙로 차 없는 거리'를 추진하는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9월4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 부분 개관과 함께 시작된 '금남로 차 없는 거리' 시범 사업은 지난 28일 여덟번째 행사를 마지막으로 끝났다.

교통 통제로 인한 금남로 일부 상인들의 반발에 부담을 느낀 광주시가 규모를 축소하면서 예정보다 한 달 빨리 시범 사업을 마무리한 것이다.

광주시는 올해 모두 3억원을 들여 '금남로 차 없는 거리'를 추진했다.

매주 토요일 동구 금남공원~전일빌딩 구간 왕복 5차선 도로(길이 518m)의 차량 통행을 전면 통제하는 대신 공연 등 프로그램 통해 문화전당과 함께 도심 한복판에 놓인 금남로를 문화특화거리로 만들려던 게 광주시의 계획이었다. 문화전당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문화도시 광주를 알리려는 취지가 깔려 있다.

시민들은 자동차에게 내주었던 도로를 마음 놓고 걷는 것 자체만으로도 '차 없는

거리' 행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다양한 문화 행사를 경험하면서 큰 즐거움을 얻었다. 매회 행사 주최측으로 참여하는 인원이 1000여명에 이르렀다.

하지만, 광주시는 행사 초기부터 "영업에 지장이 있다"는 일부 상인들의 민원에 부딪혔다. 충분한 사전 검토와 계획 없이 불과 몇 달 만에 행사를 준비하고 추진했기 때문이다. 결국 지난 10월 행사 개최 한 달 만에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기로 결정했다. 공청회를 통해 상인이나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려는 시도조차 없이 내린 결정이다.

당시 설문조사에서는 시민 2명 중 1명이 '계속해야 한다'(52%)고 답했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은 10%에 불과했다. 상가에서도 '계속해야 한다'(41%)는 목소리가 '하지 말자'(37%)는 의견보다 많았다.

지역 문화예술계와 시민들은 일부 프로그램을 보완해 내년에도 정기적으로 '금남로 차 없는 거리'를 지속해야 한다고 요구

하고 있다.

지난 9월부터 매달 진행되는 대전시의 '중앙로 차 없는 거리'는 행사 때마다 수많은 인파가 몰리는 등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 대조적이다. 대전은 교통통제 구간도 광주시의 2배에 달하는 1.1km(옛 충남도청~대전역)에 이른다. 크리스마스 이브(12월24일)에는 야간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뒤늦게 '금남로 차 없는 거리' 결과 분석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세부계획이 없는 상황여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광주시 관계자는 "금남로 주변 주민과 상인, 참여했던 시민, 행사를 꾸렸던 예술인들의 의견을 듣고 차 없는 거리에 대한 반응과 효과를 분석할 계획"이라며 "내년에 관련 예산이 반영돼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분석 결과에 따라 행사를 추진할 여지는 남아 있다"고 밝혔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문화전당 개관 축하 고싸움놀이 광주 남구 고싸움놀이보존회는 휴일인 29일 광주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문화전당 개관을 축하하는 고싸움 놀이를 선보였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광주지검 청소년상담실 소년사범 재범 방지 효과

### 재범률 21.5%→6.3%로 급감

검찰이 소년사범들의 재범 방지를 위해 운영 중인 청소년상담실이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해 21.5%에 달했던 소년사범 재범률이 올해 6.3%로 그쳤다.

29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지난 5월 지역 사회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 33명을 상담위원으로 위촉해 5개월간 청소년상담실을 운영한 결과, 청소년범죄 재범률이 지난해 21.5%에서 올해 6.3%로, 전년동기 대

비 15.2%포인트 급감했다.

청소년상담실은 검사가 의뢰하는 소년사범에 대해 전문 상담위원들이 상담처리를 하는 곳이다. 상담위원은 청소년 선도 활동 경험이 풍부한 교원과 심리상담지도사·청소년지도사 등 전문자격 소지자들로 구성됐다.

기존에는 조사자와 피조사자라는 일방적인 관계였다면 이들은 대등한 관계에서 훈계가 아닌 대화를 통해 재범방지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또 전문가 상담과 함

께 선도 동영상 시청, 소감문 작성, 보호자 병행 상담 등 다양한 선도 기법도 활용하고 있다.

상담실 운영 5개월동안 소년사범 159명이 상담을 받았고, 이 중 10명이 재범(재범률 6.3%)했다.

광주지검은 청소년 재범을 막기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해 치과 치료, 가족사랑캠프 등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또 상담 인원과 대상을 확대하고 행정기관, 교육청 등과 연계해 청소년 선도 보호 광주·전남지역 시민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목포교도소 재소자 뇌염 사망

12년을 복역한 장기수가 뇌염 치료 중 병원에서 숨져 교도소가 경위를 파악 중이다.

28일 목포교도소에 따르면 재소자 A(50대)씨가 이날 새벽 5시20분께 광주 모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병세가 악화해 숨졌다. A씨는 두통 등을 호소해 지난 달 3일 목포의 한 병원에 입원해 뇌수막염 진단을 받고 사흘 후 광주의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징역 1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며 내년 2월 만기출소를 앞두고 있었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 여친 감금 무차별 폭행 의전원생 벌금형 선고에 봐주기 판결 논란

### 대학원생·네티즌 잇단 비난

예비사위가 여자친구를 2시간가량 감금 폭행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봐주기 판결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은 피고인이 대학원생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학교에서 제적될 위험이 있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하지만 피해자와 시민들은 그로 인해 고통을 받는 피해자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광주지법은 같은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는 여자친구를 감금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광주지역 모 의학전문대학원 원생 A(33)씨에 대해 지난달 14일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를 2시간이상 계속해서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의학전문대학원생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학교에서 제적될 위험이 있어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28일 새벽 3시10분께 광주 남구에 사는 여자친구 B(31)씨의 집에서 전화를 친절하게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의 뺨과 온몸을 수차례 폭행하고 목을 졸랐다. 이후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전화를 끊고 도망친 뒤 2시간가량 무차별 폭행했다.

이로 인해 B씨는 갈비뼈 2개가 부러

지는 등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었다. B씨는 A씨와 같은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이다.

A씨는 또 지난 6월 광주시 서구의 한 술집에서 C(여·26)씨가 의대생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 모두 항소한 상태다.

판결이 알려지자 피해자인 B씨와 같은 대학원 학생들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B씨는 폭행사건 이후 학교에 가해자 처벌과 수업 시간 조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개입하지 않겠다'며 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음에 따라 A씨와 B씨는 같은 교실에서 수업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네티즌들도 법원의 판단과 학교의 대응을 비난하고 있다. 윤모씨는 광주시청 홈페이지에 "이런 사람을 의사로 키우는 학교에 큰 실망감을 감출 수 없고, 피해자 편을 들어준 법원에 대해서도 분노를 감출 수가 없다"고 글을 남겼다. 박모씨도 "판결이 말도 안 된다"며 "가해자가 퇴학조치 당할까봐 형을 감한 것은 피해자에겐 어마어마한 고통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 조선대 학생회 간부 횡령 의혹 수사 착수

조선대 학생회 간부들의 잇단 횡령 의혹(본보 26일자 6면)과 관련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9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조선대에서 발생한 학생회 간부들의 장학금 편법 수령과 학교 신문 도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학교 관계자와 학생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조선대는 최근 제3차 명의로 공로 장학금을 부정수령한 모 단과대 전 학생회장 A씨에 대해 유죄판결 처분을 내렸다.

또 조선대는 최근 총동아리연합회 간부들의 공로 장학금, 학생회 운영비 등 1000만원대 횡령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지난 23일에는 학생회 간부들의 횡령 의혹이 실린 조대신문 수천부가 배포 직후 사라지기도 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 "제자들에게 돈 빌리고 강의 소홀 교수, 해임 처분 정당"

○...제자들에게 상습적으로 돈을 빌리는 등 물의를 일으켜 해임된 대학교수가 학교당국을 상대로 해임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

○...29일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강희)는 학생들에게 30여차례에 걸쳐 700여만원을 빌리고, 해당된 강의시간을 채우지 않아 해임된 전남대 A교수가

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교수는 학생들에게 돈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객관적 처분을 받았는데도 또 다시 같은 문제를 반복한데다 재직시 10차례나 무단으로 국외여행을 하고, 매주 9시간의 강의 의무 시간마저 지키지 않았다"면서 "A씨가 반성하고 있다더라도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

/박정욱기자 jwpark@

### "MG여성만세예금"이란?

알뜰한 당신에게 "MG여성만세예금"을 추천합니다.

만 18세 이상인 여성들에게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출금 통장!

(단, 수수료 면제 조건이 충족 되어야 면제 됩니다.)

**담보대출**

APT, 주택, 상가, 대지      감정가 대비 70% 가능

보증서 담보 대출(햇살론)      최대 2,000만원 가능

임대보증금 대출      보증금 대비 최대 80% 가능

**신용대출**

최대 5,000만원 까지 (담보대출 보유시 우대금리 적용)

※ 당사가 정하고 있는 조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체크기 설치 및 유지 보수 관리(결제계좌 변경시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 건수에 따라 유지보수 수수료 지원 가능

### "MG new 정기적금"

예금을 크게 키우는 똑똑한 금융 습관!

가입조건에 따라, 우대이율이 제공되는 정액적립식 예금!

▶ 1년 최대 2.6% 이율 적용

**빛고을새마을금고**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웅주점** 062)525-2774~5  
(용봉동 주민센터 앞)

**삼각점** 062)525-2776~7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앞)